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성명서 채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2017년 첫 총회서 만장일치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2017년 첫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과거의 낡은 교육체제를 극복하고 미래의 새로운 교육체제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총회에서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참석 교육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교육감들은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고 민주시민은 참여를 통해 성숙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것이야말로 중앙선관위도 제안한 세계적 추세이며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학교 신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 설립 정책 철회 안건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 지역의 학교 신설을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연계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최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2017년 첫 총회를 개최하였다.

는 것을 철회하여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도시 개발에 따른 피해

가 교육소외지역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세계 최초 드론축구단 띠운다

신성장동력 탄소산업·드론산업 융복합한 e스포츠산업으로 적극 육성

전주시가 신성장동력산업인 탄소소재와 드론기술을 융·복합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드론축구단을 구성했다.

전 세계에서 드론축구라는 새로운 스포츠를 최초로 가장 처음 개발한 전주시는 드론축구단 최초로 구성·운영하게 돼 드론축구 종주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22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드론축구 상설체험장에서 만 14세부터 최고만 58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전주시 드론동호인 50여명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전주시 드론축구 선수단 선발전을 열었다.

드론축구단은 전주시에서 시작된 드론축구의 저변확대 및 세계화를 위해 총 20명으로 구성되며, 시는 이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지원된 코스 미션 수행 시간 측정과 간단한 드론정비 기술 구술면접 등을 평가해 전주시를 대표할 선수단을 최종 선발했다.

선발된 선수단은 앞으로 전주시를 대표하는 드론축구선수단으로서 다양

한 활동에 나서게 된다.

시는 드론축구 상설체험장 내에 선수단 전용 공간을 제공하는 등 선수단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드론축구는 최근 드론산업 기술이 급성장하고 널리 보급됨에 따라 전주시와 협력 기관인 (사)캠퍼스종합기술원이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한 신개념 스포츠로, 탄소소재를 활용해 제작된 드론축구공은 탄소소재 전용보호기구로 감싸 초고속으로 날아나는데 경기 중 서로 부딪히더라도 잘 깨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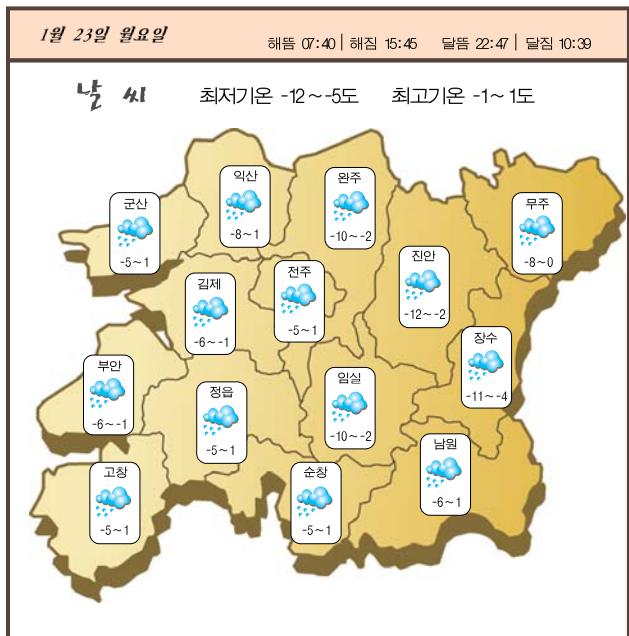
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드론축구를 전주시 신성장동력인 탄소산업과 드론산업을 융복합한 e스포츠산업으로 적극 육성해 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전국대회 개최와 드론축구 리그 등 드론스포츠산업 시장 형성과 드론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퇴직선배 초청 신년 간담회

코레일 전북본부는 최근 익산역 회의실에서 철도에서 퇴직한 선배(OB) 24명을 초청하여 신년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2016년 새해를 맞아 철도를 업으로 한 평생을 생활하다가 퇴직한 선배님들을 초청하여 철도 선·후배간의 사랑과 정을 나누고 오늘날 눈부신 철도발전의 뒤에는 어려운 시절을 꾸준히 참아내고 인내해준 선배들의 희생이 있었음을 감사드리고자 마련됐다.

전북본부장의 환영인사로 시작된 간담회는 코레일 홍보영상 시청, 코레일의 주요 경영현황 설명 및 질의응답, 발전하는 코레일 행복한 코레일을 위해 선배들이 들려주는 새해대감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퇴직한지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식지 않는 퇴직선배들의 철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장연철 전북본부장은 “선배님들이 틈틈하게 뿌리를 내려준 한국철도를 후배들이 더욱 발전시키고 성장시켜 코레일이 세계 최고의 철도운영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교육지원청, 군산교육계획 설명회 성료

군산교육지원청은 20일 오후 2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올해 군산교육계획설명회를 실시하였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올해 군산교육의 방향을 이해하고 함께 만드는 학교 교육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 군산지역 유·초·중·고교 학교장을 비롯한 각 학교 운영 위원장,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 군산교육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군산시사회초교 그린나래 중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올해 군산교육계획 설명회 이어 서울대학교 교육과학 조용환 교수의 “삶과 공부와 취업

그 의미에 대하여”란 주제로 인문학 강의가 있었다.

김원태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6개 핵심역량을 강조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학교현장 및 교육공동체와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실천해 나갈 것이며 특히 ‘질문’ 교육이란 결국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교육을 뜻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군산의 어린이들이 배움을 통하여 사회의 주역으로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시 드림스타트, 예비학부모 대상 교육 진행

'예비초등 첫 단추 부모교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지난 20일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자녀양육 지도 등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예비초등 첫 단추 부모교실’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학부모로서 준비해야 할 마음가짐과 아이가 낮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법 등 부모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김기순 전북교육청 부모교육 강사는 특히 참여한 학부모들에게 △내 아이의 마음의 소리 듣기 △엄마 자신의 마음

돌보기 등의 교육을 통해 조바심을 버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날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은 첫아이의 입학과 시작으로 부모역할의 중요성과 자녀양육 지도 등에 대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오영인 전주시 여성가족과장은 “점점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요즘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부모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서부신시가지 도청앞

전주시 완산구 흥선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선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다른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선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선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심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